

대구주보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2015.12.27.(다해) 제1978호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ubo.or.kr>



폼페오 지롤라모 바토니, 『성가정』(1745년),
캔버스에 유채, 모스크바 푸쉬킨 박물관.

† 오늘의 전례

“부모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있는 예수님을 찾아냈다.” (루카 2,41-52 참조)

성가정이라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가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때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가정, 언제나 하느님으로부터 위안을 받으며 힘을 얻는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가정의 모습입니다.

제1독서 집회 3,2-6.12-14

제2독서 콜로 3,12-21

복음 루카 2,41-52.

입당송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았네.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어려움 없이 얻어지는 기쁨은 없다

신홍식 루가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사무처장

중국 당나라의 시인 백거이는 장한가에서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에서 날면 비익조(比翼鳥)가 되고, 땅에서 태어난다면 연리지(連理枝)가 되리.> 비익조는 날개와 눈이 하나밖에 없어서 암수 서로가 합쳐야 함께 날 수 있다는 전설 속의 새를 말합니다. 또한 숲 속의 나무들은 좁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가지들과 맞닿은 채로 오래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의 꺾임이 벗겨지고 생살이 찢겨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지 하나가 붙게 되고, 나중에는 다른 가지들도 붙어서 마치 한 나무처럼 보이게 됩니다. 가지가 붙어서 연리지(連理枝)가 되고, 나무가 서로 붙어서 연리목(連理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두 나무가 붙어서 하나가 되지만, 두 나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개성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노란 꽃을 피웠던 나무는 여전히 노란 꽃을 피우고, 빨간 꽃을 피웠던 나무는 여전히 빨간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두 나무가 한 나무처럼 살아가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인 삶을 살아가는 연리지와 연리목을 혼인한 부부의 삶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을 하다보면 서로에게 실망과 혼인에 대한 후회, 그리고 좌절과 절망이라는 깊은 환멸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우리 부부만 어렵게 사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부부들이 혼인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그것을 잘 극복하려는 노력과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움 없이 얻어지는 기쁨은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이면서 가장 가까운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작은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천년 전, 나자렛의 가정이 왜 성가정의 모범이 되고 있는가? 아픔과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극복해야하는가? 그 답을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자렛의 성가정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태 1,20)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루카 1,31-30)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8)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5년 가정 성화 주간 담화문(요약)

가정과 혼인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하느님의 사랑이 절정에 이르러 마침내 외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사랑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한국천주교회는 2001년부터 성가정 축일로 시작하는 한 주간을 '가정 성화 주간'으로 정해, 가정과 가족 구성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가정의 의미를 특별히 되새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는 혼인과 관련하여 중대하고도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곧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종교적 윤리와 도덕적 가치에 대한 회의감, 개인주의와 쾌락주의의 확산, 그리고 그에 따른 성의 상품화와 생명경시현상의 가속화 등으로 불륜과 피임과 낙태를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의 붕괴와 해체를 가져오는 이혼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혼인에서 이혼에 이르는 기간도 점차 짧아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선전하며 이혼을 부추기는 대중매체, 이혼과 관련한 법률제도의 홍보, 그리고 합리적인 재산분할제도의 발달 등에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인마저도 교회 가르침에 무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직면한 혼인과 가정의 위기는 한 개인이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가정의 문제는 사회전반에 걸쳐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하며, 사회에 노출되는 그러한 부정적 현상은 다시금 개인과 가정으로 고스란히 되돌아가

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과 너무나도 다른 우리 인간을 존중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인 부부 역시 배우자의 차이와 다름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느님의 유일한 계획인 '사랑의 친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가정성화주간을 통해 참된 사람이 누구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숙고해 봅시다. 참된 사람은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하느님이시며 인간이신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십니다. 바로 그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이러한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곧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이야말로 부부와 가정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도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본받아 항구히 사랑의 소명을 수행해 나갑시다. 그래서 성탄의 거룩한 빛이 모든 부부와 가정공동체에 밝게 비쳐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2015년 12월 27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에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조 환 길** 대주교

새로운 말의 배움 2

마석진 프란치스코 신부 | 계산본당 부주임

제가 코차밤바라는 도시에서 말을 배운 학원은 메리놀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원이었습니다. 말을 배울 수 있는 기간은 5개월.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분명 충분한 기간은 아니었지만 오직 말을 배우기 위한 기간이었고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도 안되기에, 저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루 하루 지날수록 점점 말이 늘었고, 한 마디도 못했던 홈스테이 집에서도 가족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학원에서도 공부만 할 수 없으니 여러 가지 체험학습들을 제공했는데, 전통 무용춤이 제 마음에 들어 춤도 배우고 말도 자연스럽게 하며 시간을 보냈고, 조금씩 늘어가는 저의 언어실력에 나름 자신감을 가지며 5개월 간에 공부를 끝내고, 제가 사목해야할 산타크루즈라는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돌아오면서, “야, 정말 내가 똑똑하구나. 5개월 공부에 한 언어를 배우다니.”하며 자만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제가 코차밤바에서 대화했던 사람들은 저의 학원 선생님들이나 홈스테이 했던 가족들. 그분들은 제가 말을 못하는 것을 알았기에 정말 천천히 말해주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들로 이야기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만감에 빠져 산타크루즈에 있는 우리 본당 『크리스토 살바돌』이라는 본당에 와서 한 주일을 보내며, 저의 모든 자만감은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와,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말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이유인즉,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크다 보니 지역말이 있고, 즉 사투리가 존

재하고, 무엇보다도 발음을 알아 듣기가 너무 힘들었고 말이 너무나 빨랐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서울 사람이 대구 와서 무슨 말 하는지 잘 알아 듣지 못하는 그 충격의 몇 배 정도였습니다. 웃으며 코차밤바에서 산타크루즈로 왔다가 완전히 다시 울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면 “아”하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때 신자분들이 저에게 용기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신부님, 잘 알아 들으시고, 말 잘 하시는 편이다. 걱정마라.”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신자분들은 한국 신부들을 여러명 봤을 것이니, 힘 내라고 한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들었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분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특유의 발음과 빠른 말씨로 이야기를 할 때는 저를 위해서 천천히 말해주고, 제가 못 알아 들어 몇 번이나 물어 봐도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분들의 인내심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라고 생각하고 인내를 가진 대화를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우리에게 말을 거시며, 당신의 말을 알아 듣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비와 인내로 그 대화를 포기 하지 않으시는 당신. 분명 우리는 그 사랑에 다시 하느님과 대화 할 용기를 내어 봅니다. **필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빠 저예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올해는 크리스마스에 못 갈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다음 해에는 꼭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다음에 뵈요 아빠!”

“메리크리스마스! 할아버지!”

장을 보고 집에 들어서는 할아버지 앞으로 자동응답기에 녹음된 딸과 손녀의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자식들의 뻘한 거짓말로 매년 혼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 자녀들이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를 테이블 위에 던져두고 홀로 쓸쓸히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합니다. 건너편 집에 선물 꾸러미를 들고 찾아온 자녀들의 모습이 그저 부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자녀들 앞으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부고장이 도착했습니다. 갑작스런 소식에 슬픔에 찬 자녀들이 하나, 둘 할아버지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는 식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초가 켜져 있었습니다. 빼꼼이 주방에서 얼굴을 내미

는 할아버지는 놀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너희를 다 모을 수 있겠니?”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만찬을 즐기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독일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에데카의 광고입니다. 부모님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이번 연말연시에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나의 집이란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다.”
(로이스 맥마스터 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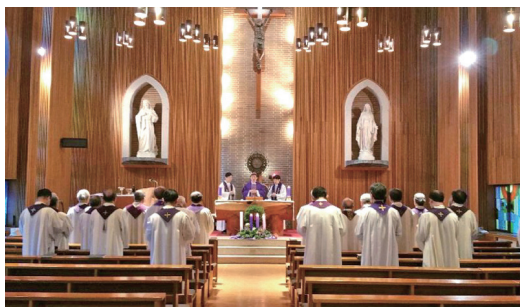


금주의 성인

12월 27일	성녀 니카레테(동정녀, 410년경), 성 요한(사도, 복음사가, 100년경) 성 테오도로(수도승, 순교자, 775-841년), 성녀 파비올라(과부, 로마, 399년)
12월 28일	성녀 돔나(동정 순교자, 303년), 성 돔니오(신부, 로마, 4세기), 성 인데(순교자, 303년)
12월 29일	성 다윗(왕, 예언자, 구약인물, 이스라엘, BC 10세기), 성 트로피모(바오로의 제자, 주교, 1세기경) 성 토마스 베케트(주교, 순교자, 캔터베리, 1118-1170년), 성 크레센시오(순교자)
12월 30일	성 사비노(주교, 순교자, 아시시, 303년), 성녀 아니시아(순교자, 테살로니카, 304년) 성 아니시오(주교, 테살로니카, 410년), 성 에그윈(주교, 우스터, 717년)
12월 31일	성녀 멜라니아(과부, 자선가, 383-439년), 성 실베스테르 1세(교황, 335년)
1월 1일	성 알마치오(순교자, 400년경), 성 에우젠도(수도원장, 콘다트, 510년경) 성녀 에우프로시나(동정녀, 알렉산드리아, 5세기경), 성 윌리엄(수도원장, 디종, 962-1031년) 성 오딜로(수도원장, 클뤼니, 961/962-1049년), 성녀 판체아(수녀원장, 로소리, 530년경)
1월 2일	성 그레고리오(주교, 교회학자, 교부, 나지안주스 329-389년) 성 (대)바실리오(주교, 교회학자, 교부, 329-379년), 성 빈첸시아노(은수자, 672년) 성 아달하르도(수도원장, 코르비, 753-827년), 성 마카리오(신부, 수도원장, 알렉산드리아, 394년)



■ 제51차 주교 영성 모임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2월 14일(월)부터 15일(화)까지 한티 피정의 집에서 열린 제51차 주교 영성 모임에 참석하였다.

■ 신암성당 설립 70주년



대주교님께서는 12월 20일(일) 오전 10시 30분 신암성당에서 본당설립 70주년을 기념하여 103명의 신자들에게 견진성사를 거행하셨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52주간, 2015. 12. 27~12. 31.>

주일	월	화	수	목
묵시4-7장	8-11장	12-15장	8-11장	20-22장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요한 묵시록』

- 묵시(默示) 문학 : 박해와 외세침략 등 위기 시대인 기원전 200년경부터 기원후 100년경까지 유대교에서 유행하던 문학양식으로서 마지막 때와 하느님의 결정적 통치에 관한 계시를 담고 있다. 묵시문학 저자들은 하느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기존의 질서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 『요한 묵시록』의 목적 : 신실한 이들은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흔들리는 이들은 의심을 버리고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다.
- 『요한 묵시록』의 핵심 주제 : '십사만 사천 명'(7,4;14,1,3)에 대한 잘못된 해석처럼 특정한 교파나 사람들만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은 살해 된 어린 양(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22,20나)

※ 이것으로 2015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성경통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자녀를 들볶지 말고



미사안내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2월 28일(월) 11:00 도량성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월 2일(토) 11:00 대안성당
대구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12월 28일(월) 11:00 계산성당	푸른군대 첫 토요 신심미사	1월 2일(토) 11:00 성모당
오순절평화희마을 후원회미사	12월 28일(월) 11:00 수성성당	발달 장애아와 가족을 위한 월미사	1월 3일(일) 16:00 성모마사성당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1월 2일(토) 10:00 프란치스코	-	-

대리구 소식

VIA(복음 묵상 나눔집) 다해 출판

주일미사 준비와 나눔을 위한

복음 묵상 도움집

신청: 1대리구청, 426-7200

성소 | 피정

작은예수회 2박 3일 무료 피정

기간: 12.30(수)~1.1(금)

장소: 가평 작은예수회마을

내용: 모든 질병과 어두움 버리기

출발: 대구시민회관 11:40

문의: 박테레사, (010)2646-0583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10명)

기간: 1.19(화)~20(수), 효령 하늘집

내용: 정기모 신부와 함께 하는

주고 받은 상처의 치유 시간

문의: 동천성당, 326-5004

성령봉사회 1박 2일 피정

기간: 1.23(토) 14:30~24(일) 16:00

성경통독 피정: 1.4(월) 14:00~6(수)

장소: 고령 월막 대구성령봉사회

1일 치유 피정: 1.16(토) 14:00

신청: (054)954-0951

제주도 성 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 한라산, 미사, 기도, 강의

기간: 1.10~12 / 1.22~24 / 1.26~29

2.12~15 / 2.17~20 / 2.25~27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교육 | 모집

1월 빚매제기도 쉽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1월 빚매제기도는 쉽니다.

2월 둘째주 토요일에 열립니다.

아씨시수녀들과 함께하는 수도생활체험

일시: 개인 신청 가능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주최: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문의: 전베로니카 수녀, (010)5313-0241

겨자씨성서모임 2016 신입생 모집

구약반: 화 10:00, 20:00

신약반: 수 10:00, 20:00

심화반: 월 10:00, 20:00 복음묵상

및 기도수련, 영성 심화과정

문의: (010)4107-4627

나를 찾는 에니어그램

일시: 1.30(토) 10:00~16:00

1.31(일) 10:00~16:00

대상: 개인, 가족 환영

주최: 예수성심시녀회 우애관

신청: (010)2649-2045

2016학년도 전기 2차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 교육, 특수 대학원 신입생 모집

접수: 1.5(화)~12(화)

문의: 850-3583(일반)

850-3505(교육) / 660-5511(특수)

참고: <http://www.cu.ac.kr>(모집요강)

대구가톨릭대 차이나포럼 23기 원우 모집

개강: 3.14(월) 19:00(현재 접수중)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석식,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수업료: 100만 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장례지도사 국가자격무시험 교육생 모집

야간: 선착순 25명 / 토: 13:00~21:20

월, 수, 금 18:30~22:20(주 20시간)

대상: 20세 이상 / 학력, 남녀 제한 없음

문의: 대가대장례교육원, 555-4404

미소나리 출장뷔페
에식뷔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뷔페
대표 양 애 향(마리아)
사회적기업 (주)서구웰푸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리.kr>

글랜드 통증의학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 의·원장 정 순 우 (요셉)
범여네거리 글랜드호텔 건너편 범여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여역 6번 출구)

에이 통증의학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 / 허리 디스크 / 협착증
• 이명 / 어지럼증 / 두통
• 오십견 / 어깨통증 • 무릎 관절통
통증의학전문 의·원장 이준석(이나시오)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여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여역 1번 출구 앞

NAVER 메디펫동물병원 검색
각종 수술 전문 중증 노령견 전문
메디펫동물병원
원장 임 대 진 (미카엘)
병원 761-8875 TBC 맞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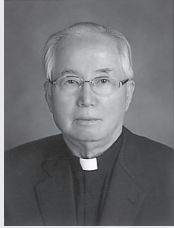
대면상담과 함께하는
“바오로 사도”
발자취를 따라서...
터키, 그리스 - 12박 13일
출발일: 2016년 4월 25일
T. (053)253-3399
조 철 래(유스티노)
홍 미 희(안젤라)
(주)영지여행

행복의로기
(행복메디칼)
가정용 의료기, 체온계, 마스크
혈압계, 혈당계, 건강측정기기, 실버용품
병원용품 도·소매, 건강기능식품
대표 이 희 자(루시아)
☎ 053)626-0072
내당네거리 진성두류타운 뒤편(시내배출가능)

장 윤 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와 임상교수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전문
경대병원 응급실건너편
T.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부고



정학모(루가) 신부님 선종

대구대교구 소속 정학모(루가, 향년 78세) 신부님께서 지난 12월 20일(일)에 선종하셨습니다. 12월 22일(화)에 장례미사를 거행하였으며 신부님의 묘소는 군위 성직자묘역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부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빕니다.

행사 | 모임

바나의 성모기도회 월미사

가난한 이와 병자, 고통받는 이들에게
발현하신 성모님

일시: 12.31(목) 14:00, 삼덕성당

교육 | 모집

제4회 YHY해외봉사단 모집

기간: 2.11(목)~19(금) 8박 9일

장소: 필리핀 마닐라 일대 / 약 175만 원

주관: 교구 청소년국, 250-3037

시니어 평생대학 봉사자 프로그램 연수

기간: 1.18(월)~2.15(월) 4주, 매주(월)

장소: 교구청 교육원 나동

마감: 1.11(월) / 3만 원

문의: 교구 노인사목담당, 250-3077

2016 평신도수도자 신학석사과정 모집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원(야간)

원서접수: 1.5(화)~12(화)

학위취득: 논문석사 / 교과석사과정

문의: 남산동캠퍼스, 660-5111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가곡·성가교실, 어린이성악, 통기타,

우쿨렐레, 오카리나, 플룻, 바이올린,

성가반주법, 성인생활영어회화, pop,

통기타가요교실 / 문의: 476-6211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겨울캠프

기간: 1.5(화)~7(목) 2박 3일

대상: 본교에 관심 있는 초6~중2

문의: (054)338-0530

http://www.sanjayeon.ms.kr

채용 | 안내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숙사 사감 채용

대상: 35세 이상 미혼 여성

4년제 대학졸업자 중 가톨릭신자

근무조건: 기숙사 내 거주, 2년 계약

문의: 859-4063~4 / 마감: 1.14(목)

참조: http://dormitory.cu.ac.kr

성모당 상설고해소 1.4(월)부터 운영

고해시간: 매주 월~금 15:00~16:00

매주 금 19:30~20:30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2016년 신앙다이어리 출시

판매가: 10,000원

판매처: 교구 문화홍보실, 계산서원,

성바오로서원, 성바오로딸서원,

바티카노, 동천성당 성물방

삼덕성당 임마콜라따 성물방

대구평화방송(FM 93.1)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

대구대교구 원로 사목자와 원로 수도자의 삶을 나누는 휴면 다큐 '임파라 사랑따라' (대구평화방송 홈페이지 다시듣기 가능)

시간: 매주 토 오전 11시 5분~12시 / 재방송 주일 오전 11시 5분~12시 (주파수 안내: 포항 96.9MHz, 안동 100.7MHz, 김천 100.5MHz)

1월 2일(토), 9일(토) 16일(토) 김동기(미카엘) 신부

1월 23일(토), 30일(토) 이용길(요한) 신부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티리아)

대구은행역
1번 출구
국민은행 ● 대구은행
본점

코리아
알트만
(4F)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KCC 인테리어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대구그리다스튜디오
설레임으로 다가와
추억을 그리다!

가족촬영 | 우정촬영 | 리마인드촬영 | 웨딩전문촬영
드레스대여 | 텍시도대여 | 메이크업 · 헤어디자인

김 대 현 (프랜차이즈)

☎ 053)424-7777 | 010-2112-8236

전통한복의 명가 대한민국 한복명장

이명자 한복방

· 혼수/예단/수의 · 한산모시 전문점
중구 반월당 삼정그린코아 상가 115호

☎ (053)421-2827/421-2828

이명자(세실리아), 강윤정(아네스)

성누가종합내과외과
(구.성누가의원) 이진진원

진료과목: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신경과
위 · 대장내시경, 건강검진센터(공단검진, 5대암)
원장 이관석(루가) · 원장 서영익(미카엘)

경북대 치과병원과 삼덕내거리 사이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 1번출구 앞 2층(사대부고 맞은편)

☎ 053)255-3134

건물청소(입주, I · T 청소(소독), 연간관리 등)
시설경비, 방역소독, 저수조청소(소독)
소방시설종합관리, 주거환경개선(집수리)

(주)행복한세상

대표전화 053)524-1231
http://www.hbdaegu.co.kr

행복한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아동 방과후 학교운영)
후원전화 070-8911-6033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 · 순환기, 소화기 · 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김지영(대전안드레아) 외 3인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상위 1%의 공, 학습무기를 준비하라!

UP 학습코칭

· 공부방법 특강 · 분석독서코칭(비,문학)
· 시험코칭 · 다중지능/적성검사/상담

윤 종 선 (가필로)

☎ 053)752-0966 범어동 KBS앞

NAVER 대구UP학습코칭 검색

대형주차장 원비 / 여성전용임원실

제크하세로
오늘의 제크하세로

♣ 형문(지철)수술 ♣ 내시경
♣ 대장내시경 ♣ 건강검진
병력장 아우구스티노스
신건물 대우아파트 앞

959-7175